

## [ 종합·해설 ]

## 광주 문화수도 내년 예산 대폭 삭감

## MB정부 의지 부족 '우려가 현실로'

CT연구원 설립 취소 등 이어 또 축소 의구심

지역정치권 공조·국회 차원 예산 회복 나서야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 과문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삭감은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 위원장의 장기 공석과 CT연구원 설립 타당성 조사 취소 등과 맞물려 이명박 정부의 광주 문화 중심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비틀거리고 있는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 조명해 본다.

◇내년도 예산안=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 사업 예산으로 505억원을 확정했다. 이는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특별법 종합 계획안상의 09년 예산액 2천323억원의 22%에 불과하다. 올해 예산 886억원에 비해서도 381억원이나 감소했다.

특히, 광주 문화수도의 기반이 되는 문화사업 관련 예산은 대부분 종합계획상에 삽입 예산에 비해 10~20% 정도 반영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기재부에서는 아시아문화 전당과 관련한 설계 논란과 공사 지연 등으로 전당 건립 예산 축소를 비롯, 많은 사업들이 대폭 축소 편성되면서 전체적인 예산 배정이 줄어들었다는 입장이다.

## 국토해양부 국감

호남고속철의 조기 완공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이 연내에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 참석,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과 관련해 “연내에 기본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으로부터 “호남고속철을 조기 완공하기 위해서는 올 연말까지 기본계획 변경이 꾀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

그러나 아시아문화 전당 조성 사업 예산은 제외하고라도 7개 문화권 구축 사업, 문화도시기반 구축 사업, 문화산업 육성사업, 관광 활성화 사업, 국제문화교류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 전반적인 사업 예산이 대부분 삭감됐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사감 확정한 예산안을 예산 국회에서 전액 뒤살리기는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지역 정치권이 총력을 다하고 민주당이 당분 차원에서 추진하면 핵심사업 예산은 뒤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종환(가운데) 장관이 호남고속철 조기완공 등과 관련, 여당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여수박람회 방문하기 멀다” 53%

## 엑스포 인지도 조사

‘발품 팔아 구경하기에는 너무 먼 여수세계박람회?’

오는 2012년 열리는 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 국민 10명 중 5명은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방문하는데 부정적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각종 도로를 비롯한 교통 수단의 확장적인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 성곤(민주당) 의원이 6일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여수엑스포 인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에 방문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 ‘오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42%

에 불과했다. 10명 중 5명은 방문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오지 않겠다’고 응답한 가장 큰 이유로는 ‘거리가 너무 멀다’

(53%)는 점을 꼽았고 ‘관심이 없다’(9%), ‘비용이 많이 든다’(6%) 등의 의견 순으로 집계됐다.

또 ‘여수랑 바다랑’이라는 여수박람회 미스코트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는 12%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수를 방문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들에게 평균 체류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58%가 2~3일간 머무를 것이라고 답했고, 교통편은 자가용(60%), KTX(18%) 등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지난 7~8월 2개월 동안 서울 및 지방 5대 도시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었다.

김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박람회 흥보 개최 뿐만 아니라 숙박·교통시설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

## 광주·전남 원어민 교사 예산 ‘쥐꼬리’

## 교사 수·배치 학교도 전국 평균 밀돌아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광주와 전남은 쥐꼬리만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원어민 교사 수가 적고, 배치 학교도 적었다.

한나리당 이군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올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련 예산은 14억7천9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은 22억7천300만원으로 광주와 대전(18억8천700만원), 울산(20억3천800만원)에 이어 네 번째로 낮은 예산을 투입했다.

원어민 교사가 97명인 전남은 15%였으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원어민 교사 34명인 제주도 2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학교 비율은 광주 51.2%, 전남 38.8%로 전국 평균(56.5%)을 밀돌았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 “호남고속철 기본계획 연내 변경 가능” 정종환 장관

## “조기 완공 위해선 차량선정 선행돼야” 김성곤 의원

어떤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같은 정 장관의 발언은 오송-광주 2015년, 광주-목포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한 ‘호남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2006년 8월 고시)을 연내에 변경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정부는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초기 개통 공약에도 불구하고, 기본 계획 변경에 대한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

이에 이 의원은 “앞으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4년밖에 남지 않았다. 10조 4천635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국책 사업인 만큼 올 연말까지 기

본계획 변경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호남KTX가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이날 국토해양부 국감에서는 “호남고속철도의 사업시기를 앞당기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차량선정부터 먼저 해

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철도차량 미확정 시 최적의 설계 도출이 어려워 처음부터 과대 설계가 우려되고 향후 뿐만 아니라 차량차량의 성능 등을 반영하기 위해 잊은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호남고속철의 조기 완공을 위해서는 차량 선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차량 선정작업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제5회 주역 7080 충장축제 와 함께하는 IBN 광주교통방송 '고향사진' 특집공개방송

10월 8일 19:00

광주 7080 충장축제  
제5회 충장축제  
제5회 충장축제  
제5회 충장축제

주역 7080

107 12